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이상우(李翔宇)**

이 논문은 김정은의 ‘축전외교’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외교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는 ‘축전외교’를 개념화한 선행연구가 없고, 김정은의 ‘축전외교’에 주목한 학문적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논문은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의 횟수, ‘축전외교’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김정은 ‘축전외교’의 대내적·대외적 효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김정은 명의로 매년 보내는 연하장과 축전 역시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집권 초반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전외교’의 국내 정치적 활용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내재한 불안정성에 완충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큰 효용은 대외적 효용, 즉 ‘축전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축전 문구 첨삭, 『로동신문』 속 축전 위치 조절, 축전 단절 등 방법을 사용했다. 넷째, 2019년 이후 김정은의 ‘축전외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두드러진 특징은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이다.

주제어: 김정은, ‘축전외교’, 국내정치적 활용, 대외적 효용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 중국해양대학교(中國海洋大學) 부교수.

1. 왜 김정은의 ‘축전외교’인가?

이 논문은 김정은의 ‘친서외교’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외교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이 논문이 정상외교의 일종인 ‘축전외교’에 주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 에 기인하지만,²⁾ 북한체제의 특수성, 코로나 시기라는 상황적 특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축전외교’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북한과 같이 인치(人治)적 특성이 강한 나라의 경우 최고지도자가 주도하는 정상외교(Summit Diplomacy)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³⁾ 그럼에도 외교 전략과 정책의 관점에서 김정은의 정상외교 또는 정상회담을 다룬 연구는 별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2019년 북중·북미 정상회담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⁴⁾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대미·대중국 전략과 정책이 핵심고리인

1) ‘축전외교’의 개념 및 특징과 관련한 논의는 제2장에서 할 것이다.

2) 이성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2016), 60쪽.

3) 박병광,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18-07(2018), 5쪽.

4) 박병광, 위의 글;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현대북한연구』, 22권 2호(2019); 최우정, “김정은 시대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1~5차 정상회담에 대한 『로동신문』·『人民日報』 분석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김아영, “북한의 대미정상회담 협상전략 유형 연구: 제1·2차 북미정상회담 사례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김혜원, “김정은 시대의 북미 정상회담 연구: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1호(2021).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렇다고 대미·대중국 전략과 정책이 북한 대외 전략과 정책의 전부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러 외교를 포함한 기타 국가에 대한 외교가 대미 외교나 대중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김정은의 ‘축전외교’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정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축전외교’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정상외교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⁵⁾

둘째, 주요 기념일이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을 때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간 주고받는 ‘축전’과 답전은 국가 간 관계에서 아주 유용한 외교 수단인데, 특히 ‘당 대 당’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총비서’ 명의로 된 축전을 주고받으며 ‘동지’ 관계를 재확인하기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축전의 양과 질을 따져 보면 현재 북한외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⁶⁾ 그럼에도 김정은의 ‘축전외교’에 주목한 학문적 논의는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⁷⁾ ‘축전외교’를 개념화한 연구는 아니며, 분석 시기가 2021년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김정은의 ‘친서외교’에 대한 고찰은 이른바 ‘3대 세습’을 통해

5) 그러한 점에서 김정은-트럼프 간 ‘친서외교’를 다룬 서원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서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6) “‘불량국가’ 北…축전 보낸 나라 40% 확 줄었다,” 『서울신문』, 2017년 11월 18일, 15쪽. 이 논문에서는 ‘친서외교’의 효용이나 역할이 ‘동지’ 관계 재확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데, 관련 논의는 제2장에 자세하게 할 것이다.

7) 이재영,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19(2021); 이동률, “중국 공산당 100년, 북중 우호조약 60년에 즈음한 북중관계의 현실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논평』(2021); 박병광, “2021년 북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21 중국정세보고』(2022).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인정’과 ‘예우’를 받았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⁸⁾ 최고지도자가 되기 전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지도부와 ‘상견례’를 마친 후계자 김정일과 달리, 후계자 김정은의 중국방문 및 중국지도부와의 ‘상견례’는 김정일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⁹⁾ 2012~2013년 중국지도부의 교체, 2013~2017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시기의 북중 간 갈등, 2014년 선(先)방북 관례를 깬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선(先)방한, 2011년 이후 7년만인 2018년에야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 등으로 볼 때, 이른바 ‘혈맹’으로 불리는 중국으로부터의 ‘인정’과 ‘예우’조차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승계,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원수 교체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 최고지도자와 주요 ‘친선’ 대상국 국가정상 간의 신뢰 쌓기에도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향후 중러 등 국가에서 정부교체가 이루어졌을 시 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2018년 3월 북중 정상회담 이전 ‘친선’국가 정상과의 (구두)친서를 통한 아홉 차례의 대화와 교류, 외국 정상급 인사의 북한 방문 시 김정은과의 면담 등을 제외한다면,¹⁰⁾ 축전 및 답전을 주고받은 것

8) 이와 관련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대외정책이나 대외활동과 연계시킨 연구도 유익한데, 아래의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정태,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3호(2011); 정한열, “북한 ‘후계자’의 외교활동 전개 조건에 관한 연구: 8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김용찬, “권력승계기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일과 김정은 권력승계 과도시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9권(2014).

9)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 김정은이 배석하면서 중국지도부[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커창(李克强)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부총리]와 다른 차원의 ‘상견례’를 마쳤다. 『로동신문』, 2010년 10월 10일, 2쪽; 2011년 10월 25일, 1쪽.

이 김정은 정상외교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실상 정상은 물론이고 고위급 간 상호 교류와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 양국 정상 간 축전교환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동률 교수의 지적처럼,¹¹⁾ 김정은의 ‘축전외교’에 대한 연구는 현재와 향후의 북한외교를 평가 및 전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축전 및 답전은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확인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상외교’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축전외교’를 개념화할 것이다. 제2장의 ‘축전외교’ 관련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제3장에서는 김정은 ‘축전외교’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김정은 ‘축전외교’의 개념과 현황 분석

이 논문이 주목하는 ‘축전외교’의 행위 주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10) 2013년 7월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의 북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일, 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2015년 6~7월 쿠바공산당 제1비서 특사의 쿠바공산당 제7차 전당대회 상황 통보차 방북, 2015년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조선로동당 창당 70주년 기념활동 참석차 방북 등이 대표적이다.

11) 이동률, “중국 공산당 100년, 북중 우호조약 60년에 즈음한 북중관계의 현실과 과제,” 『Global NK 논평』(2021), 1쪽.

즉 북한의 국가원수다. 따라서 ‘친서외교’의 개념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상외교’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친서외교’의 정의

‘정상외교’의 개념과 틀을 활용해 북한외교를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논의는 이수형(2002)이다. 이수형은 ‘정상외교’를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들간의 쌍무적, 다자적인 공식적 모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직접적, 간접적 외교 양식”으로 정의했다.¹²⁾ 비슷한 시기 ‘정상외교’의 개념과 틀을 중국외교에 적용한 박병광의 경우, “전문외교관이 아닌 국가원수, 수상 또는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 등이 직접 외교교섭에 나섬으로써 국가 간 현안을 최고위급 수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외교수단”으로 ‘정상외교’를 정의했다.¹³⁾

한편, 주권국가의 정상(수반)들이 주고받는 서한이자 편지인 ‘친서(親書, autograph letter)’에 주목, ‘친서외교’의 개념화를 시도한 서원의 연구는 “친서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일종의 외교 형태”로 ‘친서외교’를 정의했다.¹⁴⁾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는 전보”라는 축전(祝電)의 사전적 의미, ‘정상외교’ 및 ‘친서외교’에 대한 위의 정의들을 기초로 할

12) 이수형, “정상외교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2002 신진 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권(2002), 46쪽.

13) 박병광, “中國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江澤民시기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3집 2호(2003), 367쪽.

14) 서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21쪽.

때, 이 논문에서의 ‘축전외교’는 “일국(북한)의 국가원수(국가정상)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축전 및 답전을 통해 상대국 국가원수와 대화 및 교류를 진행하는 외교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한편,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 김정은의 ‘축전외교’이기에 김정은 명의로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 명의로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을 기사 제목에 근거해, 구체적 국가 명칭이 나타난 경우와 ‘여러 나라’로 된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드러나듯이 김정은 명의로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은, 축전의 경우 구체적 국가 명칭이 나타난 축전(a와 c)과 ‘여러 나라’로 된 축전(b와 d), 그리고 답전의 경우 구체적 국가 명칭이 나타난 답전(e와 g)과 ‘여러 나라’로 된 답전(f) 등 일곱 가지 유형의 축전 및 답전이 있다. 이 중에서 기사 제목이 ‘여러 나라’인 경우, 즉 b 유형과 f 유형의 내용에는 국가 명칭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발송 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타 축전 및 답전과 다르다. 구체적 국가 명칭 및 발송 일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국가 및 정상이 북한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고, 특히 해당 일자 『로동신문』이 발행된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b와 f가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b(연하장과 축전) 유형은 1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기사 내용 속 국가 명칭의 나열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을 보이기에 북한과 해당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국가라서 『로동신문』에 f 유형 형식

15) 외교의 목적이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라는 점에 비춰, 정의에서 “공식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련 문제들”(이수형)과 “국가간 현안”(박병광) 대신 사용했다.

〈표 1〉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 명의로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

	기사명	『로동신문』 날짜, 쪽	비고
a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선거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3월 7일, 1쪽	축전
b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2월 8일, 2쪽	축전
c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2년 1월 1일, 4쪽	축전
d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2년 1월 15일, 2쪽	축전
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4월 24일, 1쪽	답전
f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1월 29일, 1쪽	답전
g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2012년 3월 29일, 1쪽	답전

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주요 ‘친선’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도 f 유형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유사한 목적의 답전임에도 시기에 따라 ‘단독’으로 내보내다가 ‘여러 나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기에,¹⁶⁾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비교가 북한과 해당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16) ‘단독’은 〈그림 1〉의 a, c, e, g 유형의 경우처럼 국가 명칭 및 발송 일자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키며, 논문의 아래 부분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김정은 ‘친서외교’의 일반적 특징

‘친서외교’라는 개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친서를 주고받는 횟수, 해당 외교 관계에서 친서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친서가 기여한 외교적 성과, 즉 친서의 효용이 증명되어야 하듯이(서원, 2021: 21),¹⁷⁾ ‘친서외교’ 역시 그 개념화를 위해서는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의 횟수, ‘친서외교’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 ‘친서외교’의 효용이 중요하다.

첫째,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의 횟수이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김정은 명의로 보낸 축전 및 답전은 총 27회이다. 그 중에서 『로동신문』에 ‘단독’ 기사로 내보낸 것과 연하장과 축전(2월)을 합치면 총 20회이다. 이런 방식으로 집계한 2012~2021년 김정은 명의로 보낸 ‘단독’ 축전 및 답전의 횟수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에서 집계한 횟수를 통해 계산해 보면, 2012~2021년 10년간 김정은 명의로 보낸 ‘단독’ 축전이 총 205회, ‘단독’ 축전 및 답전이 총 258회이다. 이는 ‘단독’ 축전이 21회/년(20.5회/년), ‘단독’ 축전 및 답전이 26회/년(25.8회/년)과 2회/월(2.2회/월)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친서외

<표 2>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 명의로 보낸 ‘단독’ 축전 및 답전(2012-202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축전(회)	18	16	13	16	19	16	18	25	42	22
답전(회)	2	0	1	2	8	1	3	8	14	14
계(회)	20	16	14	18	27	17	21	33	56	36

17) 서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21쪽.

〈표 3〉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 명의로 주기적으로 보낸 ‘단독’ 축전 및 답전
(2012~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시(혁)	<u>시(건)</u>	러(선)	쿠(생) 라(생) <u>러(건)</u>		러(해)	시(생) <u>중(건)</u>	러(생)	중(선) 시(시)	<u>라(건)</u> 중(생) <u>쿠(건)</u>
2013			라(생) 시(혁) 중(선) 쿠(선)	<u>시(건)</u>		쿠(생) <u>러(건)</u> 중(생)		러(해)	시(생) <u>중(건)</u>		시(시)	<u>라(건)</u> <u>쿠(건)</u>
2014			라(생) 시(혁)	<u>시(건)</u>		쿠(생) 시(선) <u>러(건)</u>		러(해)	시(생) <u>중(건)</u>		시(시)	<u>라(건)</u> <u>쿠(건)</u>
2015	베(교)	베(당)	라(생) 시(혁) 라(당)	<u>시(건)</u>	러(승)	쿠(생) <u>러(건)</u>		러(해) 쿠(교)	시(생) <u>중(건)</u>		시(시)	<u>라(건)</u> <u>쿠(건)</u>
2016	라(선) 베(선)		라(생) 시(혁)	<u>시(건)</u> 시(성) 쿠(선)		쿠(생) <u>러(건)</u>	중(당) 중(약) 시(교)	러(해) 라(생)	시(생)		시(시)	<u>라(건)</u> <u>쿠(건)</u>
2017			시(혁) 라(당)	<u>시(건)</u> 바(선)		쿠(생) <u>러(건)</u>		러(해) 라(생)	시(생)	중(선)	시(시)	<u>라(건)</u> <u>쿠(건)</u>
2018			시(혁) 시(일) 중(선) 러(선) 라(당)	<u>시(건)</u> 쿠(선)		쿠(생) 중(생) <u>러(건)</u>		러(해) 라(생)	시(생) <u>중(건)</u>	<u>중(건)</u> 러(교)	시(시)	<u>라(건)</u> <u>쿠(건)</u>
2019			시(혁) 라(당)	<u>시(건)</u> 시(성)		쿠(생) <u>러(건)</u>		러(해) 라(생)	<u>베(건)</u> 시(생) <u>중(건)</u> <u>중(건)</u> <u>쿠(건)</u> <u>쿠(건)</u>	<u>중(건)</u> <u>중(교)</u> 쿠(선)	시(시)	<u>라(건)</u> <u>쿠(건)</u>
2020	<u>쿠(건)</u> 베(교)	베(당) 시(일)	시(혁) 라(당)	<u>시(건)</u> 시(성) 쿠(생)	러(승)	쿠(생) <u>러(건)</u>		러(해) 라(생) 쿠(교)	<u>베(건)</u> 시(생) <u>중(건)</u> <u>쿠(건)</u> <u>베(건)</u> <u>라(건)</u> <u>시(건)</u>	<u>중(건)</u> <u>중(당)</u> 라(당) 쿠(당) 시(당) 베(당)	시(시)	<u>라(건)</u>

2021	쿠(건) 라(선)	베(선) 시(일)	시(혁) 라(당) 라(선)	베(선) 시(건) 시(성) 쿠(선) 쿠(생)	시(선)	쿠(생) 러(건)	중(당) 중(약) 베(선)	러(해)	베(건) 중(건) 쿠(건) 베(건) 라(건) 시(건)	중(건) 베(당) 라(당) 시(당)	시(시)	라(건)
------	--------------	--------------	----------------------	--------------------------------------	------	--------------	----------------------	------	--	------------------------------	------	------

- 주: 1) 표 안에 들어가는 각 나라와 정당의 명칭 및 기념일은 약칭을 사용함. 시(시리아), 라(라오스), 쿠(쿠바), 중(중국), 러(러시아), 베(베트남), 북(북한); 바(바트당(시리아 대통령 겸임)); 혁(혁명일), 건(건국일), 선(당선), 생(최고지도자 생일), 광(광복절), 일(김정일 탄생), 성(김일성 탄생), 시(시정운동 기념일), 승(전승절), 당(창당), 회(당대회), 약(조약), 교(수교), 해(북한 “해방”); 건(북한 건국일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 당(조선로동당 창당 기념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 생(신(新) 최고지도자 생일).
- 2) 밑줄 그은 축전 및 답전은 공통적·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임. 실선과 점선은 각각 북한이 보낸 축전과 답전임.

교’라는 개념을 부여할 양적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친서외교’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이다. 서론의 문제 제기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3월 북중 정상회담 이전 김정은과 외국 정상 간 아홉 차례의 ‘친서’를 통한 정상외교가 성사되었다. 이는 중국 5회(2012년 1회, 2013년 2회, 2015년 1회, 2016년 1회), 러시아 1회(2014), 쿠바·베트남·라오스 각 1회(2016)이다. 이러한 ‘친서 외교’를 제외하면, 외국 정상과 축전 및 답전을 주고받은 것이 김정은 정상외교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에서 드러나듯이, 김정은 명의로 보낸 축전 및 답전을 1년 주기와 5년 주기(축전의 경우 5~7년 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이 중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김정은 명의로 보낸 연하장과 축전, 6개국 건국일 기념 축전, 그리고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이다.¹⁹⁾ 또한 표에 넣지 않은 비주기적인 축전 및 답전도 다수 있다.

18) 러시아 대통령 선출(6년 주기)과 시리아 대통령 선출(7년 주기) 축전을 제외하면, 국가원수 선출 시 보내는 축전은 일반적으로 5년 주기이다.

예컨대 일부 국가와의 수교 기념 축전, 그리고 '추대'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들이다. 비주기적인 것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축전 및 답전의 내용을 해당 연도나 김정일 시대 것과의 비교분석에 활용하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친서외교'의 효용이다. 2018년 이후 이루어진 북중·남북·북미·북러 정상회담 등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들이 '친서외교'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친서외교'의 효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친서외교'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 대외적·대내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축전은 단순 의례적인 것일지라도 상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서외교'의 단절, 즉 축전을 주고받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전이 단순한 축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즉 "축전이 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외교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친서'와 대비된다"라는 주장과 달리,²⁰⁾ 축전 및 답전에는 상대국 정상에 대한 '호명'의 변화, 양국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양국 '친선'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한 '희망사항' 등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의 사설, 정론이나 논평이 상대적으로 강한 어조로 상

19) 러시아 대통령 명의로 보낸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이 『로동신문』에 나타나지만, 그에 대한 답전 기사에는 러시아가 빠져 있다. 빠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축전에 답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보내는 답전도 있다고 보고 공통적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매년 러시아 건국일(6월 12일) 기념 축전, "해방의 날"(8월 15일) 기념 축전 교환 등을 기초로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에 대한 답전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20) 서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35~36쪽.

대국에 대한 자국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축전’의 성격 상 어조보다는 단어나 문구의 침착을 통해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축전 작성을 관장하는 중국 외교부 예빈사(禮賓司) 소속의 전직 외교관이 재직시절을 회억하면서 “축전이 양국관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寒暑表)’”라고 강조한 점을 되새겨 볼 만하다.²¹⁾ 다음으로, 김정은 명의로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을 『로동신문』에서 언제, 어느 면의 몇 번째 기사로 내보내는지 역시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축전 및 답전의 대내적 효용이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도 한다. 『로동신문』에서 외국 정상이 보낸 축전 및 답전을 ‘활용’한 사례들이 수차례 발견되는데, 이는 ‘친서외교’의 대내적 효용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이 단순한 ‘친선’ 확인을 넘어서는, 김정은과 외국 정상 간 공식적·간접적·비대면적 대화와 교류이며, 이는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의 사설, 정론이나 논평 못지않게 주목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한 두 해의 축전 및 답전 간 비교를 넘어, 5년이나 10년이라는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살펴본다면 그것이 주는 현재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 논문이 김정은의 ‘친서외교’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21) 축전은 문구 초안 작성 이후 외교 사령탑인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최종 심사를 거쳐 완성되는데, 저우 총리는 수정할 내용에 동그라미와 심사 의견을 적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축전의 내용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吳德廣, “賀電裏的外交秘密,” 『世界博覽』, 第13期(2015), p.95.

3.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내용과 특징

2010년대 미중관계의 변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와 권력승계의 불안정성 내재 등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은 대외전략에서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고,²²⁾ 그 중심에는 대중국 외교와 북중 관계가 있다. 물론 그간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대중국 외교는 핵심 고리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최저조건으로 작용했다.²³⁾ 또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후계계승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주요한 우방이자 대국인 중국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 내지 지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²⁴⁾ 따라서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정,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의 대중국 외교의 핵심이고, 김정은의 ‘친서외교’ 또한 이러한 대중국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친서외교’의 국내정치적 활용

김정일의 후계체제 준비 및 대비로 인해 김정은의 수령 ‘지위’ 승계는 순탄하게 확보했으나, 수령의 역할까지도 인정받아야 권력승계의 온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핵실험과 인공위성

22)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2013), 193~224쪽.

2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368쪽.

24) 김연수, “김정은체제 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위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2호(2020), 112쪽.

〈표 4〉 『로동신문』에 나타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축전

『로동신문』	발송 일자	발송 국가	당선 축하 키워드
2012년 1월 1일 ¹⁾	2011년 12월 31일	중국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1월 4일	2011년 12월 30일	시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2012년 1월 13일	2012년 1월 10일	시리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2012년 1월 15일	2012년 1월 2일, 3일, 5일, 7일, 2011년 12월 29일	여러 나라	최고령도자,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직책

주: 구체적인 기사 제목과 『로동신문』 속 위치(면수)는 논문 마지막의 부록 참조. 이하 동일하다.

발사 성공 등 정치·군사적 성과 외에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²⁵⁾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정치·군사적 분야나 경제적 분야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대외정책 분야에서 비교적 쉽게,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²⁶⁾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정과 지지를 권력엘리트들과 인민대중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이고 가능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실제 중국 등 외국 정상들의 ‘호명’을 통해 김정은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우선, 중국 후진타오 주석 축전에 나타난 발송 일자가 시리아 대통령의 축전에 나타난 발송 일자보다 하루 늦음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축전이 맨 먼저 『로동신문』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시리아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인정’이 더 중요하며, 북한에게 있어서의 중요성이 중국 → 시리아 → ‘여러 나라’의 순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원수 김정

25) 김근식, 위의 글, 206~207쪽.

26)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國際政治論叢』, 제42집 4호(2002), 163쪽.

〈표 5〉 『로동신문』에 나타난 조선로동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축전

『로동신문』	발송 일자	발송 국가	당선 축하 키워드
2012년 4월 13일 (왼쪽)	2012년 4월 11일	중국	<u>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u> <u>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u>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2012년 4월 13일 (오른쪽)	2012년 4월 11일	라오스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신것
2012년 4월 15일 (왼쪽)	2012년 4월 13일	중국	국방위 제1위원장과 <u>조선로동당의</u> <u>령도밑에</u>
2012년 4월 15일 (오른쪽)	2012년 4월 12일	쿠바	당신의 가장 책임적인 사업
2012년 4월 15일 (중국 축전 아래쪽)	2012년 4월 11일	베트남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1일	중국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 1~2번, 3~5번 기사, 6번 기사가 같은 사건 관련 기사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음영으로 표시했다.

은의 위상과 권위를 외국 정상들의 ‘호명’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축전을 보낸 국가,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호명’을 ‘최고사령관’(중국, ‘최고령도자’에 이어 ‘최고사령관’(시리아),²⁷⁾ ‘최고령도자’·‘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직책’(‘여러 나라’)의 순으로 보여 줌으로써, 결국 최고사령관 = 최고령도자(최고지도자)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외국 정상이 보낸 축전에 대한 활용을 2014년 4월에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표 5〉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라오스 축전과 베트남 축전을 활용해 메시지에 있어서 중국 축전과의 동일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7) 시리아 대통령은 두 번의 축전을 통해 ‘최고령도자’와 ‘최고사령관’, ‘추대’를 축하하고 있다.

즉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추대’ 축전에 있어서 중국 축전과 라오스 축전의 동일화, 그리고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축전에 있어서 중국 축전 및 쿠바 축전과 베트남 축전의 동일화를 통해, 중국·쿠바·라오스·베트남 등 국가의 정상 모두 김정은을 북한의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의 권력엘리트들과 인민대중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반면, 2014년 4월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축전의 경우, 중국의 축전에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가 들어갔기에, 기타 국가의 축전을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고, 따라서 중국 축전을 다른 나라의 축전과 같은 날짜와 같은 면 『로동신문』에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친선외교’의 대외적 활용

중국이 보낸 축전 또는 답전 속에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가 최초로 들어간 것이 2014년 4월이 아닌, 2013년 3월이다. 문제는 중국이 보낸 축전 또는 답전이 상술한 문구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북한 국가원수로서의 김정은에 대한 인정을 거듭 반복했다는 점이다.

〈표 6〉에서 드러나듯이, 김정은이 보낸 축전 및 답전이 일관되게 중국 국가원수(후진타오, 이후 시진핑)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중국도 김정은에 대해 똑같이 ‘예우’할 것에 대해 중국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이 시기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더가시적이었고,²⁸⁾ 이에 김정은의 ‘친선외교’는 2013년 9월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6〉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중 정상 간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2013년 9월 이전)

『로동신문』	김정은이 보낸 축전 및 답전	『로동신문』	중국이 보낸 축전 및 답전
2012년 4월 24일	(답전)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2012년 4월 13일	(축전)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2012년 4월 15일	(축전)국방위 제1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2012년 11월 16일	(축전)나는 형제적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2012년 12월 1일	답전 없음(리젠궈(李建國) 방북 기사에 “ 정은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들어감)
2013년 3월 15일	(축전)나는 중국인민이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2013년 3월 22일	(답전)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2013년 6월 15일	(축전)오늘 중국인민은 당신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2013년 6월 20일	(답전)중국당과 정부는…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것입니다. 당신을 제1비서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28) 박동훈, “지정학의 ‘재생산’: 김정은시대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 (2009~2018) 중국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2020), 127~128쪽.

(1) 2013년 9월 이후: 축전 문구 침삭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축전을 통해 처음 표출된 것은 2013년 9월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에서이다. 이에 북한 역시 축전 문구 침삭의 방식을 통해 대응했다.

〈표 7〉에서 드러나듯이 2013년 9월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02년부터 “조선로동당” 앞에 “김일성주석 김정일총비서 그리고”라는 문구를 담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²⁹⁾ 이는 북한을 자극

〈표 7〉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중 정상 간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2013년 9월 이후)

『로동신문』	중국이 보낸 축전 및 답전	『로동신문』	김정일이 보낸 축전 및 답전
2013년 9월 9일	(축전) <u>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u>	2013년 10월 1일	(축전)오늘 중국인민은, <u>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u>
2014년 4월 13일	(축전)나는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u>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것</u>	2014년 5월 10일	답전은 ‘단독’ 기사가 아닌 ‘여러 나라’ 기사
2014년 9월 9일	(축전) <u>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u>	2014년 10월 1일	(축전)오늘 중국인민은 <u>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u> (2013년 문구 삭제)
2014년 10월 6일	수교 축전 교환 없음	2014년 10월 6일	수교 축전 교환 없음

29) 2000년 축전에는 “김정일동지와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그리고 2001년 축전에는 “김정일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를 담았다. 『로동신문』, 2000년 9월 9일, 1쪽; 2001년 9월 9일, 1쪽.

하기에 충분했다. 북한 역시 중국 국경절 기념 축전에서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앞에 들어갔어야 할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맞대응했다.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가 북한이 보낸 2000~2004년, 2007~2012년 중국 국경절 기념 축전에 나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³⁰⁾ ‘친서외교’를 통한 북중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에 보낸 중국 축전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를 담았지만, 뒤에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것”이라는 내용을 넣어 다시 한번 북한의 불만을 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이 2012년 4월 당시 후진타오 당총서기·주석에게 보낸 답전의 형식과 달리, 『로동신문』의 ‘단독’이 아닌 ‘여러 나라’ 기사로 내보낸 것에서 알 수 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은 다시 한번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이 빠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만 담았고, 이에 북한은 중국 국경절 기념 축전의 내용을 대폭 줄였는데,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마저 담지 않았다. 더불어 중국 국경절 기념 축전을 『로동신문』 10월 1일 자 1쪽이나 2쪽의 1~2번 기사로 내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쪽의 3번 기사로 내보냈다.³¹⁾ 여기

30) 2005~2006년의 경우 위와 같은 문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년의 경우 중국이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695호(7월 1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와 1718호(10월 14일, 제1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볼 수 있겠다. 2005년의 경우 진실보의 검토가 필요하다.

31) 『로동신문』, 2014년 10월 1일, 1~2쪽.

서 한 발 더 나아가 5년 주기로 10월 6일자에 내보내던 북중 수교 축전 교환 기사도 『로동신문』에서 사라졌다.

(2) 2015년 2월 이후: 『로동신문』 속 축전 위치 조절

김정은의 ‘축전외교’는 2015년에 들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이전의 ‘친서외교’가 중국이 보낸 축전 및 답전에 대응하는 수세적 성격이 강했다면, 2015년에 들어 ‘친서외교’의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연하장과 축전 기사이다.

〈표 8〉에서 드러나듯이, 『로동신문』에 나타난 2012~2021년 김정은 명의로 보낸 연하장과 축전 관련 기사 속에 중국, 러시아, 쿠바(기사 속에 나타날 경우가 1~3순위로 나타나고, 그 뒤에 다른 국가들이 가나다순으로 나열되는 규칙성이 발견된다.³²⁾ 또한 2013년(중국, 러시아), 2017년(중국) 그리고 2019년(중국)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고,³³⁾ 2015~

32)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가나다순) → 비동맹 국가(가나다순) → 제3세계 국가(가나다순)식으로 나열되는데,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인 ‘친선’의 함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2021~2022년의 경우, 주요 친선 6개국인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시리아에게만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년 순서에서 베트남과 라오스가 바뀌었을 뿐이다.

33) 연하장과 축전 관련 기사가 『로동신문』의 2월 초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2019년 1월 7~10일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2019년 연하장에 중국이 빠진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2012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결의 2087호가 2013년 1월 22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 특히 2087호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대북 제재이기에 2013년 연하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 있는 것 역시 이례적이지 않다. 2017년 연하장과 축전의 경우 중국이 5순위 밖에도 없다.

〈표 8〉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 명의로 보낸 연하장과 축전(2012~2021)

순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순위 안	중국, 라오스	라오스	중국, 러시아, 라오스	러시아, 중국, 쿠바, 시리아, 베트남	러시아, 중국, 쿠바, 라오스	러시아, 라오스, 시리아	라오스, 시리아, 중국	러시아, 쿠바, 라오스	중국, 러시아, 쿠바, 라오스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주: 표에는 러시아, 쿠바, 시리아, 베트남으로 국가 명칭을 표기했지만,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식 국가 명칭은 각각 ‘로씨야’, ‘쿠바’, ‘수리아’ 및 ‘웬남’이다.

2018년 러시아가 중국에 앞선 1순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일환으로, 2013년에 이어 2015~2018년에 연하장과 축전을 활용해 중국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새로운 변화는 2015년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 관련 『로동신문』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표 9〉에서 드러나듯이 2015년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과 중국 국경절 기념 김정은의 축전이 『로동신문』의 ‘의도적인 홀대’를 받았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에 등장했으나, 전문이 두 문구(“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인 쿠바 축전(1쪽) 뒤인 2쪽으로 밀려났고, 중국 국경절 기념 김정은의 축전은 전문이 100자 남짓으로 2000년 이후 중국 국경절 기념 북한 축전 중 가장 짧은 축전으로 기록되었다. 더불어 축전 기사가 3쪽 그것도 2면 기사로 밀려났다. 축전과 더불어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에서조차 중국은 쿠바 뒤 2순위로 밀려났으며, 『로동신문』은 심지어 중국만 빼 김정은의 답전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이 보낸 중국공산당 창당일(95주년) 기념 축전과 5년 주기로 북중 정상 간 교환하는 북중 조약 체

〈표 9〉 『로동신문』 속 북중 정상 축전 및 답전의 위치(2015년 9월-2016년 7월)

『로동신문』	축전 내용 및 『로동신문』 속 위치	답전
2015년 9월 9일	중국 축전(2쪽, 러시아·쿠바 축전이 1쪽)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정은의 답전은 ‘여러 나라’ 기사, 중국은 쿠바 뒤 2순위 (『로동신문』, 2015년 10월 8일)
2015년 10월 1일	김정은의 축전 ○2014년 축전에 비해 줄고, 전문이 100자 남짓에 불과 ○3쪽 2번 기사(2쪽 2-4번 기사, 3쪽 1번 기사 위치 가능)	중국 답전이 『로동신문』에 나타나지 않음
2015년 10월 10일	중국 축전(4쪽, 중국, 쿠바(전문이 두 문구), 베트남 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령도밑에…최근년간 김정은제1비서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여…김정은제1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u>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u> ”	김정은의 답전은 ‘여러 나라’ 기사, 중국은 쿠바 뒤 2순위 (『로동신문』, 2015년 11월 10일)
2016년 5월 10일	중국 축전(8쪽) “우리는 중조관계의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중조친선협조를 끊임없이 발전… <u>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측과 함께 노력할것</u> ”	답전 없음. 대신 ‘친서외교’(쿠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순) ¹⁾
2016년 7월 1일	김정은의 축전(2쪽)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답전 없음. 중국 언론이 김정은의 축전을 네 번째로 소개
2016년 7월 2일	중국 축전(1쪽) “나는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정은의 답전은 ‘여러 나라’ 기사, 중국 없음 (『로동신문』, 2016년 8월 5일)
2016년 7월 12일	김정은 축전(3쪽) “중국동지들과 함께… <u>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것</u> ” 중국 축전(3쪽)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 ²⁾	축전 교환

주: 1)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친서외교’는 김영철-라울 카스트로(친서, 2016년 5월 26일, 1쪽), 리수용-시진핑(구두친서, 2016년 6월 2일, 3쪽), 최태복-베트남공산당 총서기(구두친서, 2016년 6월 7일, 3쪽), 최태복-라오스인민혁명당 총비서(구두친서, 2016년 6월 8일, 3쪽)이다. 중국, 베트남 및 라오스에 대한 ‘친서외교’ 기사는 동일한 포맷으로, 이는 중국을 베트남 및 라오스와 동급으로 ‘예우’해 중국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 시진핑 주석의 축전에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 기념 축전 역시 『로동신문』의 ‘의도적인 홀대’를 받았다. 『로동신문』은 관례를 깨고 중국공산당 창당일 기념 축전 기사를 2쪽에, 그리고 북중 조약 체결 기념 축전 교환 기사를 7월 12일 자에 내보냈다.³⁴⁾ 따라서 2016년 6~7월 당시 북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2016년 9월 이후: 축전 단절

김정은의 ‘친서외교’는 2016년 9월 들어 다시 한 번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이다. 중국의 축전이 2016년 처음으로 『로동신문』에서 사라졌는데, 『로동신문』을 확인해 본 결과 이는 2000년 이후 최초이다.³⁵⁾ 북한 건국일 기념 중국 축전과 함께 2016년 중국 국경절 기념 북한 축전 역시 『로동신문』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북중 정상 간 공식적·간접적·비대면적 대화와 교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2016년 7월 북중 조약 체결 기념 축전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왜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강조했다는지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북중 정상 간 공식적·간접적·비대면적 대화와 교류의 단절은

34) 『로동신문』, 2016년 7월 1일, 2쪽. 『로동신문』은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2001), 85주년(2006), 90주년(2011), 그리고 100주년(2021) 축전 기사를 모두 해당연도 7월 1일 자 1쪽에 내보냈다. 중국 언론이 북한, 베트남, 쿠바, 라오스 등 국가가 보내온 축전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1순위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창당 95주년 축전 소개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북한, 몽골 순서로 소개했다. 쿠바 축전 관련 보도는 없었다. “周邊有關國家政黨政要致電祝賀中共建黨95周年,” 『經濟日報』, 2016년 7월 2일, p.3.

35) 중국이 보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은 건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언론에서도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없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2017년에 들어 지속되었다. 우선, 2017년 김정은의 연하장과 축전 관련 기사에서 중국이 사라졌다(표 8 참조).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6월), 2371호(8월), 그리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9월 3일)에 대한 2375호(9월) 등이 이어지면서,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은 2016년에 이어 2017년 역시 상대국의 건국일 기념 축전을 주고받지 않았다. 또한 10월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재당선에 김정은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라는 문구를 담은 축전을 보냈지만,³⁶⁾ 중국의 ‘홀대’를 받았다.³⁷⁾ 또한 시진핑 당총서기의 답전은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노력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번영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이 김정은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또다시 “김정은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앞에 나타났다.³⁸⁾ 이는 북한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7~20일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당총서기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은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³⁹⁾ 이어 북한은 2017년 11월

36) 『로동신문』, 2017년 10월 26일.

37) 중국 언론이 축전을 소개한 순서는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 순서이다. “越南老撾古巴朝鮮領導人發來賀電賀函 熱烈祝賀習近平當選中共中央總書記,” 『光明日報』, 2017年 10月 26日, p.7.

38) 『로동신문』, 2017년 11월 2일.

39) 쑹타오 부장이 북한 방문에 앞서 베트남(10월 31일~11월 2일) 및 라오스(11월 2~3일)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북한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쑹타오 부장이 시진핑 당총서기 특사 자격으로 베트남 및 라오스 공산당 최고지도자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구두친서를 갖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宋濤轉達習近平總書記致越共中央總書記阮富仲的口信,” 『人民日報』, 2017年 11月 2日, p.3; “習近平總書記特使宋濤會見老撾人革黨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함과 동시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⁴⁰⁾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통과되었다. 중국은 2018년 김정은의 연하장과 축전 기사에 다시 등장했으나, 라오스와 시리아 뒤로 밀려났다.⁴¹⁾

3)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

‘친서외교’를 통한 북중 간 힘겨루기는 2018년 3월에 일단락되었다. 그것은 2018년 3월 25일 김정은의 1차 방중 성사가 주요 이유이겠지만, 그에 앞서 ‘친서외교’에서 북중 간 화해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보낸 2017년 10월 시진핑 당총서기 재당선 축전과 2018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재당선 축전이 축하 목적만 다를 뿐 내용이 완전 일치하다.⁴²⁾ 그럼에도 중국공산당 기관지가 2017년 10월 김정은의 축전을 베트남, 라오스, 쿠바에 이어 소개했다면, 2018년 3월 베트남, 라오스 앞에 1순위로 소개했다.⁴³⁾ 또한 2016~2017년 사라졌던 북한 및 중국 건국일 기념 축전이 『로동신문』에 다시 나타났다. 단 축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이전 양국의 축전이 공동명의로 된 축전이었다면, 2018년부터 김정은-시진핑 간 축전으로 형식이 바뀌었

中央總書記本揚,”『人民日報』, 2017年 11月 3日, p.3.

40)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2쪽.

41) 『로동신문』, 2018년 2월 2일.

42) 『로동신문』, 2018년 3월 18일; 2017년 10월 26일.

43) “越南老撾古巴朝鮮領導人發來賀電賀函 熱烈祝賀習近平當選中共中央總書記,” 『光明日報』, 2017年 10月 26日, p.7; “熱烈祝賀習近平當選國家主席,” 『光明日報』, 2018年 3月 18日, p.5. 중국 언론은 북한과 베트남, 라오스 축전을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소개했고, 쿠바의 축전을 다음 날 소개했다.

다는 점이다.

2018년 김정은의 1차 방중에 이어 2차 방중(5월 7~8일)과 3차 방중(6월 19~20일)이 연이어 성사되었고, 2019년에 들어 4차 방중(1월 7~10일)과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 성사되었다.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가 김정은 집권 초반 대외전략에 있어서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안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의 변화 시도를 이끌어 냈다면,⁴⁴⁾ 북한이 큰 기대를 건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선택적 병행’ 전략이 김정은 시대 북한 대외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국 ‘친서외교’를 포함한 김정은의 ‘친서외교’는 ‘새판짜기’를 위한 다시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화도 높이기’로 나타난다. 2019년 이후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대베트남 ‘친서외교’ 및 ‘친선’ 강화이다. 2019년부터 베트남 건국일 기념 북한 축전의 발송 주체가 김영남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고, 김정은이 보낸 베트남 건국일 기념 축전에 대한 베트남의 답전을 『로동신문』의 단독 기사로 내보내고 있으며, 더불어 2020년부터 북한은 자국 건국일 기념 베트남 축전을 『로동신문』 9월 9일자, 중국·러시아·쿠바에 이은 4순위로 내보내고 있다. 베트남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를 최초로 이행한 국가로 주목받으면서 2017년 한때 상대국의 건국일 기념 축전마저 주고받지 않았

44) 김근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2013), 193~224쪽.

던 점을 염두에 두면, 김정은의 직접 챙기기를 통해 신(新)우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친서외교’에서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 등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이다. 중국과는 “적대세력”의 압박에 맞서는 “사회주의한길/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공동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김정은의 ‘축전외교’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한길/공동투쟁”은 대라오스 ‘친서외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⁴⁶⁾ 그럼에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 모두 북한과의 “친선협조관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의한 방향으로 작용되기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회주의” 특히 “한길”이나 “공동투쟁”을 담은 축전 및 답전을 북한에 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효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 요인’에 대한 고려는 김정은의 대쿠바 ‘친서외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집권 초반 김정은의 ‘친서외교’에서 “반제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공동투쟁/반제자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한길”(2012~2013, 2015~2016), “미제의 적대세력의 제재봉쇄와 침략위협에 맞서”(2014)가 강조되었으나, 2015년 7월 쿠바-미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강조는 사라진 채, 짧고·지극히 의례적인 내용으로 된 축전과 답전만을 주고받았다.⁴⁷⁾ 2020년

45) 이른바 “적대세력”에 대한 강조는 2020년 중국 국경일 기념 김정은의 축전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1일.

46) 중국에 보낸 축전에서 강조했던 “적대세력” 없지만 “사회주의한길/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은 2019~2020년 라오스 국경일 기념 축전, 그리고 2020~2021년 북한 건국일 기념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에서 강조되고 있다. 축전은 『로동신문』, 2019년 12월 3일; 2020년 12월 3일; 답전은 2020년 9월 18일; 2021년 9월 25일.

47)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4쪽; 2014년 1월 1일, 3쪽; 2015년 1월 1일, 5쪽;

에 “적대세력”, 2021년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투쟁”, 그리고 2022년 “적대세력”과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나,⁴⁸⁾ 이 역시 쿠바-미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러시아와 시리아 체제 특성상 김정은의 대러시아 및 시리아 ‘친서외교’에서의 강조점이 위의 국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대러시아 ‘친서외교’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건국일(6월 12일) 기념 축전의 경우, 2019년 4월 북러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2019년부터 양국 관계의 이른바 “전략전술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⁴⁹⁾ 또한 김정은의 “해방의 날”(8월 15일) 기념 축전이 이른바 양국의 “전통적 친선협조”가 일제에 대한 “공동의 투쟁”(2015), 그리고 “공동의 원수” 일제에 맞서 싸우는(2016년 이후)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북한 축전의 강조점과 달리 2012~2021년 북한 건국일 기념 러시아 축전은 시종일관하게 양국의 이른바 “건설적인 쌍무대화와 협조의 발전”이 “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안정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러시아-미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친서외교’를 통한 러시아와의 ‘친선 강도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

2016년 1월 1일, 4쪽; 2017년 1월 1일, 3쪽.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북한에 보낸 쿠바의 축전이 친선 6개국 축전 중에서 가장 짧고, 지극히 의례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나, ‘반미’라는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이은 3순위로 위치된 것으로 보인다.

48)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6쪽; 2021년 1월 1일, 2쪽; 2022년 1월 1일, 5쪽.

49) 2019~2020년은 “전략적”, 그리고 2022년은 “전략전술적”이 강조되고 있다. 『로동신문』, 2019년 6월 12일, 2쪽; 2020년 6월 12일, 1쪽; 2022년 6월 12일, 2쪽.

50) 『로동신문』, 2015년 8월 15일, 3쪽; 2016년 8월 15일, 1쪽.

한이 5년 주기로 러시아에 전승절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2022년 77주년 축전을 보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왕 축전에 없었던 “적대세력들의 정치군사적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제거”라는 내용을 담았다.⁵¹⁾ 전승절 축전을 포함해 최근 북한이 친러 도네츠크인 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 역시 러시아와의 ‘친선 강도 높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리아는 중동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 그리고金正은의 ‘친서외교’에서 가장 많은 횡수의 축전 및 답전을 주고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시리아가 북한에 보낸 축전에서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북한이 일방적으로 “내외적적대세력들/제국주의자들/온갖 적대세력들의 침략” 등을 강조했다면(2015~2017),⁵²⁾ 2019년 이후 시리아 역시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적대국가들의 책동을 짓부시고”(2019), “귀국을 횡포한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에 굳건히 맞서 싸우는”(2021) 등 북한의 축전 및 답전과 유사한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⁵³⁾

요컨대, 2019년 ‘선택적 병행’ 전략이金正은 시대 북한 대외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金正은의 ‘친서외교’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친서외교’를 통해 베트남과 같은 신(新)·우군 확보와 더불어 이른바 “적대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를 추구하고 있다.

51) 『로동신문』, 2022년 5월 10일, 1쪽; 2020년 5월 9일, 1쪽; 2015년 5월 9일, 3쪽.

52) 『로동신문』, 2015년 4월 17일, 1쪽; 2016년 4월 15일, 3쪽; 2017년 4월 18일, 1쪽.

53) 『로동신문』, 2019년 9월 10일, 1쪽; 2021년 9월 8일, 1쪽.

4. 결론

이 논문은 김정은의 ‘친서외교’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외교를 평가하고자 했다. ‘축전외교’를 개념화한 선행연구가 없고, 김정은의 ‘친서외교’에 주목한 학문적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에 주목해, ‘친서외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고,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의 횟수, ‘친서외교’가 김정은의 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김정은 ‘친서외교’의 대내적·대외적 효용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그동안 김정은이 주고받은 수많은 축전 및 답전 중에서, 창당 기념 축전이나 건국일 기념 축전이 언론이나 학계의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축전 외에 김정은이 매년 보내는 연하장과 축전 기사 역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로동신문』이 해당 기사를 ‘여러 나라’로 된 제목의 기사로 내보내기에 쉽게 놓칠 수 있으나, 기사 속 국가들의 나열이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더불어 김정은 ‘친서외교’의 중요한 일환이기에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권 초반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친서외교’의 국내정치적 활용에서 나타났다. 시리아, 라오스, 베트남 등 국가의 축전을 ‘활용’해, 메시지에 있어서 중국 축전과의 동일화를 시도했고, 이런 동일화를 통해 다수의 국가의 정상들이 국가원수로서의 김정은을 인정하는 모습을 북한 권력엘리트들과 인민대중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집권 초반 정치·군사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가 단기적·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친서외교’를 통해 외교 분야의 ‘성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결국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내재

한 불안정성에 완충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은의 ‘친서외교’의 가장 큰 효용은 대외적 효용, 즉 ‘친서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대중국 ‘친서외교’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다.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축전 문구 첨삭, 『로동신문』 속 축전 위치 조절, 축전 단절 등 방법을 통해 주의의 강도를 점차 높였으며, 이를 통해 최대 우군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넷째,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략적 병행’ 전략이金正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국 ‘친서외교’를 포함한 김정은의 ‘친서외교’는 ‘새판짜기’를 위한 다시 한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베트남과 같은 신(新)우군의 ‘확보’,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이다.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미국 요인이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북한은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이 5년을 주기로 러시아 전승절에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2022년 5월 러시아 전승절 77주년 기념 축전을 보냈고, 최근에는 중국 편에 서서 미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북중 양국이 9월에 주고받을 상대국 국경일 기념 축전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가 더욱 주목된다.

이 논문이 ‘친서외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고, 이를 기초로 김정은의 ‘친서외교’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대중국 ‘친서외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

구, 북한과 가장 많은 축전과 답전을 교환한 시리아·라오스, 북한외교에 있어서 실질적·상징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인 쿠바·러시아 등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친서외교’ 관련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김정은의 ‘친서외교’와 북한의 ‘친서외교’ 연구가 더욱 풍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접수: 8월 19일 / 수정: 12월 5일 / 채택: 12월 12일

부록: 『로동신문』에 나타난 김정은이 주고받은 주요 축전 및 답전(2012~2021)

기사명	『로동신문』 날짜, 쪽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1월 1일, 4쪽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1월 4일, 1쪽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1월 13일, 1쪽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1월 15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2월 8일, 2쪽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선거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3월 7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3월 29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4월 13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4월 15일, 8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2년 4월 24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최영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2년 9월 9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13년 2월 5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3년 3월 15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2013년 3월 22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3년 6월 15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2013년 6월 20일, 3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3년 9월 9일, 5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3년 10월 1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축하장을 보내시었다	2014년 2월 2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4년 4월 13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벨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국방 및 안전리사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4년 4월 14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4년 5월 10일, 4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4년 9월 9일, 3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4년 10월 1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5년 2월 3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연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5년 9월 9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5년 9월 9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와 함께 중국의 당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5년 10월 1일, 3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5년 10월 10일, 4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5년 11월 10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16년 2월 3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6년 5월 10일, 8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6년 5월 11일, 4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16년 5월 13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6년 7월 1일, 2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6년 7월 2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6년 7월 12일, 3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16년 8월 5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6년 9월 9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7년 2월 4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7년 9월 9일, 1쪽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7년 10월 26일, 1쪽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2017년 11월 2일, 1쪽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년하장과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8년 2월 2일, 1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8년 3월 18일, 1쪽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8년 9월 9일, 2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8년 9월 9일, 3쪽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8년 10월 1일, 1쪽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19년 2월 3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9년 9월 2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 비서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9년 9월 9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9년 9월 9일, 2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답전을 보내어왔다	2019년 9월 17일, 1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9년 10월 1일, 1쪽
[전문]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전문]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2019년 10월 7일, 1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19년 12월 3일, 3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20년 2월 4일, 1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0년 9월 2일, 1쪽
[전문]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20년 9월 9일, 4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2020년 9월 9일, 5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20년 9월 18일, 2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2020년 9월 19일, 1쪽
[축전]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0년 10월 1일, 1쪽
[전문]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0년 12월 2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21년 1월 22일, 1쪽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1년 7월 1일, 1쪽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전문]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7월 11일, 1쪽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축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1면]2021.09.02	2021년 9월 2일, 1쪽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축전]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축전]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21년 9월 9일, 10쪽
[축전]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축전]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21년 9월 9일, 11쪽
[전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2021년 9월 11일, 1쪽
[전문]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2021년 9월 25일, 1쪽
[축전]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1년 10월 1일, 1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었다	2022년 1월 22일, 1쪽
[축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2022년 5월 10일, 1쪽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신문

『로동신문』(부록의 기사 관련 날짜, 쪽 참조).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2) 논문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2002), 151~166쪽.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남정책: ‘선택적 병행’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1호(2013), 193~224쪽.

김아영, “북한의 대미정상회담 협상전략 유형 연구: 제1·2차 북미정상회담 사례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연수, “김정은체제 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위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2호(2020), 103~138쪽.

김용찬, “권력승계기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일과 김정은 권력승계 과도기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9권(2014), 182~206쪽.

김혜원, “김정은 시대의 북미 정상회담 연구: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1호(2021), 79~100쪽.

박동훈, “지정학의 ‘재생산’: 김정은시대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2009~2018) 중국관련 보도에 대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2020), 115~140쪽.

박병광, “中國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江澤民시기를 중심으로,” 『國際政

- 治論叢』, 제43집 2호(2003), 365~384쪽.
- ____, “정상외교로 바라본 북중관계: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7(2018), 1~18쪽.
- ____, “2021년 북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 센터, 『2021 중국정세보고』(2022), 361~398쪽.
- 서원, “김정은-트럼프 친서외교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2권 2호(2019), 158~189쪽.
- 이동률, “중국 공산당 100년, 북중 우호조약 60년에 즈음한 북중관계의 현실과 과제,” 동아시아연구원, 『Global NK 논평』(2021), 1~5쪽.
- 이성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정책대안,”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2016), 59~102쪽.
- 이수형, “정상외교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2002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권(2002), 39~69쪽.
- 이재영,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19(2021), 1~9쪽.
- 이정태,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3호(2011), 87~106쪽.
- 정한얼, “북한 ‘후계자’의 외교활동 전개 조건에 관한 연구: 8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297~317쪽.
- 최우정, “김정은 시대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 1~5차 정상회담에 대한 『로동신문』, 『人民日報』 분석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3. 국외 자료

- 吳德廣, “賀電裏的外交秘密,” 『世界博覽』, 第13期(2015), pp.93~95.
- 『光明日報』, 2017年 10月 26日; 2018年 3月 18日.
- 『人民日報』, 2017年 11月 2日; 2017年 11月 3日.
- 『經濟日報』, 2016年 7月 2日.

A Study on Kim Jong-un's 'Greeting Diplomacy'

Li, XiangYu(Ocean University of China)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past ten years of North Korean diplomacy by examining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There is no conceptual research on such diplomacy and little academic research on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This research study probes into the number of congratulatory telegrams and returns between Kim Jong Un and foreign heads of state, the status of greeting diplomacy in Kim's summit diplomacy,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ectiveness of his greeting diplomacy, and so fort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not only the messages of greeting sent by Kim Jong Un o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arty and the founding of the country but also the New Year messages. This is because the ranking of countries mentioned in the New Year messages provides some clues to the weight of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Second, the biggest feature of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in the early years of his rule was reflected in the domestic

politics, serving as a buffer against the internal instability of the succession of supreme power in the country. Third, the biggest effect of Kim's greeting diplomacy is to draw the receivers' attention constantly by adjusting the length of greetings, cancelling them, and changing their position in the *Rodong Sinmun*. Fourth, since 2019 this diplomacy features a new adjustment, which is the attempt to access new allies and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old ones.

Keywords: Kim Jong Un, greeting diplomacy, domestic political application, external effectiveness